

나주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 학생연합회 아동권리교육 성료

화순전남대병원, 해남서 금연·건강 캠페인 전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기념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보건정책 추진과 성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결과와 시

행계획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월드케이팝센터에서 열린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 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을 종합 평가했다.

나주시는 지역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3개 전략, 9개 추진 과제, 18개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를 통해 나주시는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추진 역량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서선택 기자

담양군은 최근 담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을 담은 학생연합회' 소속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담양군이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담양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아동친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아동친화도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종연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해남군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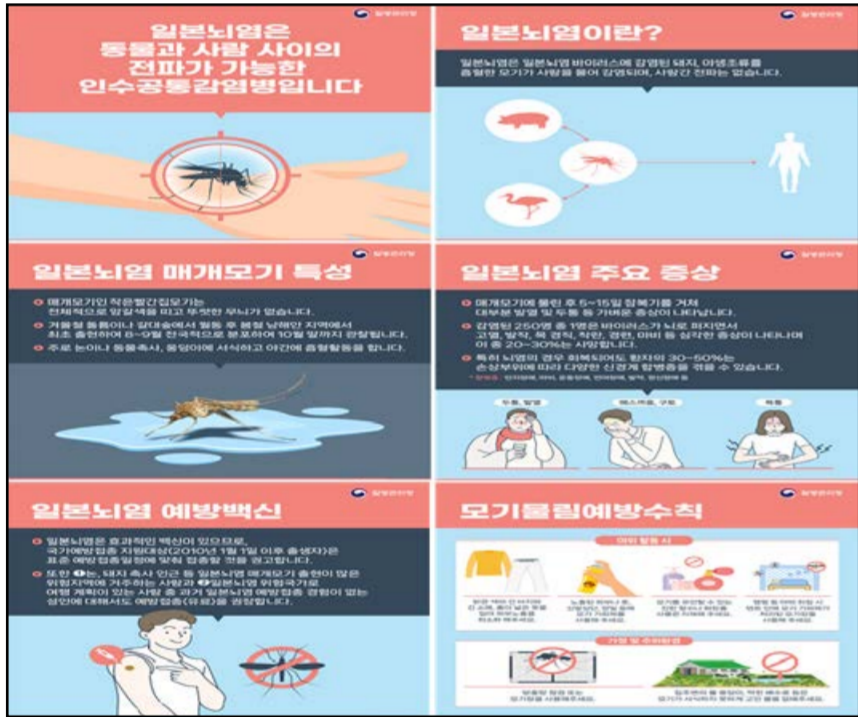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최근 해남고도승강장과 인근 전통시장 일대에서 해남군보건소,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및 해남지사와 함께 지역사회 금연문화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 지정한 기념일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른 방역 활동 강화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로 일본뇌염 예방



일본뇌염카드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7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영광군은 모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방기부터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의 정화조, 하수구, 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자율방역단과 협력해 정기적인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기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 배수로, 웅덩이 등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광읍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이 주 3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에서도 자체 방역 계획에 따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야간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방충망 정비,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AI 시대 재테크 방법 알려드립니다"

25일 장성아카데미 안유화 교수 강연

장성군이 25일 제1234회 장성아카데미에서 글로벌 경제·투자 전문가 안유화 교수 초청 강연이 열린다고 전했다. '에이아이(AI) 시대 부자 되는 법'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 전략과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와 중국시장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안유화 교수는 중국 길림화공대학교와 연변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국 하남성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교부 재외동포과 정책자문위원, 삼성글로벌 경영포럼 자문위원, 미국 산타클라라상공회의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안 교수는 생애자산론을 바탕으로 인생의 손익분기점과 자산곡선, 생애자산 관리전략을 소개한다.

'새는 돈, 사는 돈, 자라는 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건강한 경제 습관을 기르는 법과 자산을 형성하는 방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맡은 안유화 교수 사진

/장성군 제공

법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산업과 경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반도체·플랫폼·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도 짚어준다.

그밖에 'AI 시대'에 개인이 갖춰야 할 경제적인 안목과 투자 전략,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전망도 제시

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6일 장성아카데미에선 한재권 교수가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우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